dailylocal
전국 국내산 특산품 쇼핑몰
www.dailylocal.닷컴

문화매일

제1394호 2023 /5 / 18 / Thur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 RE100 본격 시동…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김동연 지사, "작은 것부터 실천이 중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RE100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21.6%로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정 전체, 각 국실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참석하고 주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또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 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찬 공동위원장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탄소중립에 제대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길, 경기도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참다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경기도의 정책과 정책실행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이 되는대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뛰어다니겠다"며 "의견들이 있거나 자문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 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위원회 이름에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기 위해 19일까지 위원회 명칭을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있다.

한편, 도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태블릿PC 활용) ▲종이 컵·플라스틱 물병 없는 회의로 진행해 약 16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포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운영, 친환경기업 투자유치, 경기도체육대회 친환경 개회식 추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혜영/기자

방위사업청, 고속상륙정(LSF-Ⅱ) 5 6호정『솔개-636637』진수식 거행

5월 17일 오후 부산 HJ중공업에서 해병대 제1사단장 주빈으로 진수

해군은 5월 17일 오후 부산 HJ중공업에서 고속상륙정(LSF-Ⅱ) 5·6호정 『솔개-636/637』 진수식을 거행했다. 고속상륙정은 완전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날 행사는 임성근(소장) 해병대 제1사단장을 주빈으로 김영수(준장) 해군 제5전단장, 송창규(대령) 해군본부 전력소요차장, 최진용(수석전문관)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기념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부인 김선희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사단장 내외가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은 축사에서 "고속상륙정 진수는 상륙군의 안전한 상륙을 돕고 사단급 고속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상륙전력이 추가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함께 하는 상륙작전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특성을 고려하여 날렵한 조류의 이름을 고속상륙정의 함명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함명을 『솔개』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속상륙정은 부양공기를 스커트(공기주머니)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진용(수석전문관)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은 "고속기동을 통한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항공기와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난이도 함정을 설계 · 건조하고 시운전 과정의 애로를 극복하여 장비 국산화에 애써주신 해군, 해병대 및 ㈜HJ중공업의 그간 노력에 감사드리며, 상륙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유관부서에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송창규(해군대령) 해군본부 전력소요차장은 "고속상륙정은 상륙군의 병력과 장비를 탑재하여 신속하게 초수평선 상륙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상륙전력"이라며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적·전술적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수한 솔개-636/637호정은 시운전 평가 등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5년 중 실전배치 및 운용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고속상륙정 솔개-631호정이 기동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명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사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경기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전일제학교) 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표준 조례안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부천부명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학교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며, 역할의 배분과 책무, 지역거점센터의 마련, 인력지원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희진 학비노조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초등보육 전담사의 역할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지적하며 돌봄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의 개선, 보편 돌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초등보육전담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포함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은 초등돌봄교실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에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의 실태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노동과 결혼, 출산과 육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을 위한 '가사(살림,육아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배영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실행한 다양한 관련 연구와 설문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처우개선과 안전한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선 모두가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8억 90만원 삭감

2023년 충남도 1회 추경,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사업 중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 19개 사업이 삭감됐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며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최정근/기자

평택시의회,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대표의원 최선자)'는 16일 3층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선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및 노인장애인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돌봄사업모델 유형 실태를 주제로 남서울대 김진수 교수의 연구 발표를 청취하고 평택시 돌봄사업모델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자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주제 발표를 통해 돌봄사업모델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며"평택시에서도 돌봄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전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남 5·18 민중항쟁 4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왜곡된 5·18민중항쟁 제대로 된 역사 교육 통해 바로 세워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 5·18 민중항쟁 43주년 기념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올해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5·18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박형대 의원을 필두로 ‘역사왜곡과 역사부정, 그리고 5·18민중항쟁’이라는 주제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날 박형대 의원은 “불의한 역사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불의의 세력과 공생하는 사회문화가 조성하면서 역사왜곡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5·18민중항쟁이다”며 “역사왜곡의 문제를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역사 바로세우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사왜곡의 근본은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고, 이것은 5·18책임자들을 사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역사왜곡은 사실상 당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5·18역사왜곡의 대처방안으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청산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더욱 힘주어 알리고 단죄하지 않는 역사적 교훈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밝히며 포럼을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태(전남대 명예교수), 유경남(5·18기념재단), 김여선(도교육청 교육자치과), 최치수(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 박오성(목상고 교사) 등이 참여하여 역사왜곡과 역사부정에 대한 심도있는 비판과 개선점을 제시했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위해 나아갈 역사교육과 방향을 모색했다.

정해명/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네 번째 연구 활동 가져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대표 이상훈 의원)가 5월 16일 네 번째 연구 활동으로 예비 창업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단체 소속 이상훈, 박소영 의원과 한국공학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동아리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창업 준비 과정 중 겪는 고충사항과 우리 시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을 나눴다.

예비 창업가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참석한 창업동아리 대표들은 “최근 우리 시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IT 콘텐츠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지원 정책이 다양한 서울, 판교 등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제조업 위주의 시흥시가 제조업종은 물론 IT, 소프트웨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창업지원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내 창업동아리에서 창업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타시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시흥에 머물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역 가산점 등 주거 안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영 의원은 “예비 창업가 청년들을 한 자리에서 보니 시흥의 미래가 밝게 느껴져 든든하다”라고 격려하며, “청년들이 시흥에 머물며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대표 의원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최대한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는 관내 창업 현황 분석을 통해 창업 지원 정책을 개발 및 연구하여 창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단체로, 지난 2월 1차 활동을 시작했으며 3월부터 각 기관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정책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신우용/기자

부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용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시민 의회교실개최

5월 18일~5월 19일 14시 양 일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열려 !

부산광역시의회는 5월 18일, 5월 19일 양일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용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시민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의회교실'은 시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반적인 의정 상황 설명, 의회시설 견학, 의정 체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주민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중심으로, '시민 의회교실'을 특강의 형식으로 개최했고, 강의형과 토론형으로 각각 일차별로 형식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연도 만족도 조사 시, 수동적 형식보다 체험형의 참여 프로그램이 더 만족스러웠다는 평가에 따라, 자유발언 등 참여형 프로그램 시간을 늘렸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생활 환경, 복지 수준 등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제도로,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부산시의회도 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일할 것임을"밝혔다

송종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역대 최대의 인파속에 성료돼

내년 봄에 다시 만나, 산나물 파티!란 주제로 열려

판매보다 먹거리 장터에 우선 컨셉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축제로 거듭나

오도창 군수,"영양산나물축제를 발전시켜 더욱 사랑받는 축제 만들겠다"

"청정영양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봄 향기 가득 품은 산나물 향기에 취하며, 별이 쏟아지는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에 취하고, 제1회 영양군 반려동물축제에 취하며, 문향의 얼이 살아 숨쉬는 지훈예술제에 취하는「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주는 청정 힐링 축제」인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라는 주제로 개최된「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지난 11일 (목)부터 14일(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월산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역대 최대의 관람객인 12만 여명이 이곳 영양을 찾았으며, 각 산나물판매 부스는 이번 축제의 컨셉이 판매보다 먹거리장터에 우선을 두고 추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판매장이 산나물이 없어 판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 영양군 잠정 추산으로 60억 여원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면서, 경북 최우수축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특히나, 고무적이었던 점은 무릇 대회의 성공은 우스개말로 열사병으로 몇사람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날씨가 쾌청해야 한다는 말처럼 날씨는 축제 성공의 가장 큰 요소이듯 이번 5월 중 경북지역에서 개최된 축제는 영양, 문경, 영주, 예천 4곳이었는데, 앞서 치러진 문경, 영주, 예천 3곳에서 개최된 축제는 모두가 우중속에 치뤄져 축제 '붐' 조성에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었는데 반해, 유달리 이곳 영양군은 하늘이 산나물 축제를 도와준 듯, 쾌청속에 치러져 대박성공의 축제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참고로, 영양군이 추진한 영양산나물축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한차례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으며 청정 영양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영양군의 대표 축제로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관광객에게 건강한 기쁨을 선사하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봄'축제로 발돋움 해왔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본격적인 대면축제의 부활로 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의 모습들이 다녀가 모처럼 이곳 영양군은 외지에서 찾아 온 관람객들과 영양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가 가득 차고 넘친 대박성공의 축제를 치러냈다.

이번 '제18회영양산나물축제'의 성공요인은 무릇, "Think a head, think prepare("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라")란 말처럼, 사전 철저한 계획과 준비·시행이 낳은 결과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축제가 열리기전 영양군은 산나물축제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축제 개최 1주일 전 미리 치러진 라이트아웃 트레킹을 시작으로 해, 산나물 비대면 마라톤대회, 일월산산나물 채취 체험, 산나물의 김치.짱아찌체험한마당, 영양고유사투리경연대회,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 지훈 예술제 등 가까이에서 청정영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영양군 입암면 선바위 일대에서 영양군 최초 '제1회 영양군 반려동물축제'를 열어 500여 애견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난 3월에 창립한 '영양군언론협회' 주관으로 가수등용문인 '제 1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예선·결선'이 펼쳐져,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분들이 무대에 올라 기성가수들을 무색하게 하는 실력을 발휘해, 수많은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축제 첫날 영양군민의 염원인 '영양양수발전 유치 범도민결의대회'로 영양양수발전 유치에 대한 뜨거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이날 결의대회 마지막순서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오도창 영양군수 등 내빈들이 나와 **'영양산채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연출로 제18회 영양산나물 축제의 서막을 올리는 등 이번 산나물 축제는 아직 채 물러가지 않은 코로나19란 침체속에도불구하고

대박성공을 거둔 축제로써 자리매김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나, 영양군청 앞길에 마련된 산나물장터 부스에는 축제 첫날부터 축제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부스 앞에 관람객들이 차고 넘쳤으며, 이들이 다녀간 곳에는 어김없이 산나물이 동이날 정도로 관람객들 손에는 산나물 바구니가 가득 들여 있었다.

취재진이 축제기간 내내 직접 살펴 봤지만, 산나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으며, 이곳에서 산나물을 구입한 관람객들이 산나물 테마거리로 연결된 동선을 따라 복개천에 설치된 고기굼터로 이동, 먹거리 문화를즐기는 멋진 축제의 시간들이었다.

복개천에 마련된 대형 천막으로 설치된 먹거리 장터에는 고기굼터, 산촌 먹거리촌, 각종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차 부스 등을 운영하여 축제 장을 찾은 이들의 눈과 입을 밤낮으로 즐겁게 하며 축제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 까지 많은 관람객들이 먹거리 장터로서의 면모를 확연히 펼쳤으며, 특히, 이곳에서는 옛 DJ 코너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신청곡이나, 사연을 읽어 주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색다른 컨셉으로 멋진 추억을 회상하며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이곳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축제의 장르를 넓혀, 영양전통시장내에서는 영양의 '문가모'란 봉사 단체가 축제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관람객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들에게 산나물을 선사하면서 중간중간 지역 연예인들의 섹스폰 연주, 기타합주, 지역가수 공연활동을 섞어가며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해,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하면서 이번 축제의 대박성공에 일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의 문학사상과 정신을 기리고자「제16회 조지훈 예술제」도 산나물 축제기간인 지난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 일원에서 개최됐다.

문향의 고장 영양을 대표하는 종합예술행사인 본 행사장에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참가 인원과 문학인,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계획시 기대한대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신규 및 야간 프로그램으로 종전의 당야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과 ▲청정 지역 영양군을 홍보로 주산물 농가소득증대 도모 ▲소비자 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람객들 신뢰를 구축과 ▲기존의 산나물 판매 축제 컨셉을 탈피하고 산촌먹거리 위주 축제로 청정영양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나물 판매장터도 동이나고, 먹거리 장터인 고기굼터를 비롯 인근 음식점에는 관람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차고넘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박성공축제를 거두게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청, 영양축제관광재단,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주민 분들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축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영양산나물축제를 발전시켜서 전국에 더욱더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4일간 펼쳐진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영양군이 준비하고 계획한 것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며 막을 내렸다.

이처럼, 이번 축제를 대박성공으로 이끌게 된 것은 보이지 않은 손길들의 도움의 면면이 확연히 돋보인 덕분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잘 협조된 축제였다.

이 축제를 기획한 영양문화관광재단의 축제단 이제희 팀장의 치밀한 계획과 이번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에 옮기고 시행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일을 추진해 온 문화관광과장 이하 특히 조중호 관광진흥팀장의 노력, 그리고 영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우회 회원들의 눈부신 봉사활동, 영양군 해병전우회의 완벽한 교통 정리, 재향군인회, 영양바르게살기협의회원들의 봉사활동 등, 영양군내 각종 단체의 협력이 그 어느 축제때보다도 솔선해 이뤄짐으로써 이번 축제가 성공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확실히 멍석을 깔아 준 축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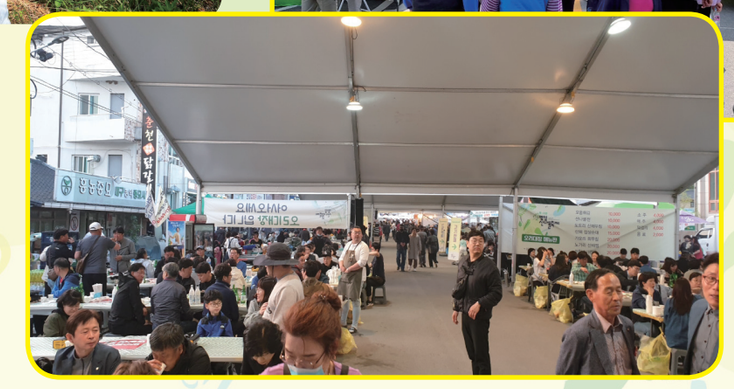
하나, 누가뭐래도 이번 축제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준비·실시에 이르기까지 동분서주하며 탁월한 리더쉽으로 축제를 이끌어 낸 오도창 영양군수의 리더쉽으로 역대 최대의 산나물축제를 이끌어 냄으로서 향후 그의 입지는 더욱 탄탄대로로 치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코로나 19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이번에 새로운 컨셉으로 변모된 산나물축제를 치러냄으로써, 영양산나물축제는 경북최우수축제를 넘어 전국 최고의 산나물 축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축제 첫날 4~5천여명이 참가해 개최된 영양군의 미래먹거리요 미래 살길인 '영양양수발전 범도민결의대회'는 매우 뜻깊은 시간과 장소에 치러져, 참으로 그 의미를 한층더 고조시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운명이 달린 것이기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는 "영양군양수발전유치를 위해 전력 투구를 약속하며 반드시 영양군이 유치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고,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양군이 하는 일이면 못할 것이 없다. 반드시 영양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 두분의 적극적인 지원은 영양양수발전 유치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될 것임은 물론, '18회 영양산나물축제'의 대박성공의 기운으로 영양양수발전유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해 보며 영양군의 미래에 서광이 비춰지길 기원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image: Freepik.com" . This cover has been designed using assets from Freepik.com

경기도,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 활용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 개발 착수

경기도, '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과 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서비스 과제에 선정돼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이하 고독사 예방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정보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6개 기관 중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안산시, 한국전력, 에스케이텔레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안산시 내 고독사 위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전력·수도·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고독사 위험도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경기똑D'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이용 데이터, 안산시 상수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분석 결과 위험 수위(정상~심각)에 따라 복지담당자와 가족에게 리포트 형식으로 알림을 제공하며, 위험징후 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위험 알림과 복지혜택 신청에는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가 활용된다.

또한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 Call)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인공지능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등의 주제로 안부를 확인한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억하기'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링 내용이 전달돼 사전 예방관리가 가능해진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고독사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똑D는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다. 현재 ▲도민을 위한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본인 확인서비스인 '도민카드 서비스'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강화군, 강화속노랑고구마 품질 고급화로 명품화 나서

속노랑고구마 베타카로틴, 칼륨 등 영양가 풍부

시대의 변화에도 늘 중요한 먹거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고구마는 중앙아메리카와 남미 베네주엘라가 원산지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통해 조선통신사였던 조엄 선생에 의해 1763년에 들어왔다.

고구마는 1970년대까지는 구황작물로 부족한 식량을 대신했으나, 2000년대부터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고구마는 미국의 식품영양운동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에서 건강식품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일본의 장수도시인 가고시마의 노인들도 장수의 비결로 고구마를 꼽기도 했다.

고구마는 영양가도 높다.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다. 특히 속노랑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어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추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구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강화군은 지역 토양과 환경 맞는 "강화속노랑고구마"로 2001년 상표를 등록해 농가별 재배기술 및 품종의 순수성을 지키고 확대하여, 현재 강화 고구마 하면 "속노랑고구마"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강화 속노랑고구마의 특징은 서해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지하수 그리고 각종 미생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재배되어 일반 고구마에 비해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아 먹기에 편하고 소화도 잘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건강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배면적은 약 450ha으로 2,500여 농가에서 매년 약 5,800톤이 생산되고 있다

속노랑고구마의 유통판매는 현재까지는 개인농가 택배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범위가 크지만,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으로 출하는 농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강화군 속노랑고구마" 품종만을 고집하는 마니아층이 확대되어, 그동안 타 지역 품종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고구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씨고구마를 사용해 종순을 생산할 경우 황화 반점, 얼룩무늬 등의 증상이 발생해 30% 이상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강화군은 2020년에 조직배양실(124㎡), 순화온실(330㎡)을 구축하여 속노랑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올해까지 70,000주를 육묘 농가에 공급했다. 최소 3년마다 농가가 씨고구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공급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는 모든 농가가 조직배양묘로 고품질의 속노랑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배양묘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 무(無)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묘를 계대배양한 후 순화 과정을 통해 육묘 농가에 보급하여 대량 증식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 증식된 종순을 본포에 정식하고 고구마를 수확하여 다음 해에 씨고구마로 활용하면 된다.

조직배양묘는 일반묘에 비해 고구마 생산량이 20~30% 늘고, 모양과 품질 등 상품성도 우수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강화군의 대표 특산물인 속노랑고구마의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를 위해 매년 3억 원을 들여 농가의 묘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속노랑고구마로 지역 명품 고구마의 순수성을 보전하고 홍보함으로써 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 및 판로 개척을 돕고, 직접적인 도농교류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병행하여 꾸준히 확대 발전시키므로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품 고구마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남/기자

안양시,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만안 협심어린이집 추가 지정

안양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으로 동안구 신촌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가운데 만안구 협심어린이집을 지난 1일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야간, 휴일과 같이 시간이나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가정 양육 중이거나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촌·협심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관내 생후 24개월부터 미취학까지의 영·유아이며, 이용일 하루 전까지 신촌어린이집(031-386-5858, 동안구 동안로 28), 협심어린이집(031-449-4701, 만안구 능곡로 21)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3천원(식대 2천원 별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권역별 균형있는 양육환경 조성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안구 소재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다양한 돌봄·육아 정책을 추진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11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9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 43개소 등 다양한 보육 형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신우용/기자

양평군, 제1회 우리밀 문화행사 개최

양평군은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리밀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제1회 양평 우리밀 문화행사를 청운면 가현리 양평 우리밀경관단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밀과 보리가 춤춘다'를 슬로건으로 문화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전체 행사장은 밀밭 산책로를 주변으로 숲 속 음식거리, 우리밀 전시관, 감성 포토존, 어린이 놀이터가 함께 조성되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밀밭 산책로는 드넓은 밀밭 속을 거닐 수 있도록 500m에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감성 포토존이 마련돼 있으며, 숲속 음식거리에서는 우리밀 화덕피자, 우리밀 국수, 우리밀 짜장면 등 먹거리부터 맷돌로 밀가루 만들기, 찐빵 만들기, 밀대 공예품 만들기 등 우리밀 체험들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밀 전시관에서는 '밀,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으로 우리밀의 역사와 옛 문헌 속 이야기, 밀알의 구조, 7가지 우리밀 샘플 전시 등 우리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획전시가 진행되며, 우리밀 시제품 홍보관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우리밀 수제맥주, 신품종(황금알) 우리밀로 만든 빵, 우리밀 아이스크림 등을 시식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 8기의 공약사항으로 우리밀 보급 확대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동시에 이번 행사는 관광과 환경의 양평을 만드는 데 모두 기여하며, 행사를 통해 양평의 지역 특색을 방문객들에게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자립 높은 경기북부도를 설치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제대로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17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히 되고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누고 보자는 접근 방식은 맞지 않다"고 방점을 찍었다.

또한 "북부의 산업구조와 도시개발,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경기북부 지역의 10개 시군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공동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인구수는 1,399만명으로 벨기에(1,160만명), 스웨덴(1,016만명)보다 많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3,928억달러로 덴마크(3,971억달러), 싱가포르(3,969억달러)와 비슷할 정도로 이미 한 국가급의 지방자치단체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경기북부 기준으로 보면 매우 떨어진다.

실제로 도시 인프라와 세입 자본 등이 경기남부인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북부에 비해 남부가 2.5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이 시장은 이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십분 공감하나,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섣부른 분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수십년간 수도권, 접경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 시장은 따라서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북부가 경기남부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각 구청이나 동에서 시의 이러한 입장을 시민들과 공유를 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근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된 것과 관련해 "도시 노후화, 일자리 부족, 교통 혼잡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혁신적인 도시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고양산업진흥원과 카카오 등과 협업을 통해 경기권의 데이터 허브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드론밸리 등 혁신사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6월 말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이면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을 앞두고 있어 김포공항과 경기서쪽 지역이 환승 없이 철도로 연결돼 고양시민은 물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곡역에 2024년 GTX-A 노선과 교외선이 개통되면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뒤 "민선8기 최우선 역점과제인 신분당선 일산 연장과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등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광역철도망 확대 추진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일산동구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상권 프로젝트 추진과 구청사 광장 시민 쉼터 명소화 계획 등 역점사업과 경의로 녹지·도로 점용 관련 사항과 강촌 손길마켓, 안곡습지공원 공원화 사업, 풍산동 분동 대비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 등 현안 및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과 중앙아시아 수출판로 개척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현지 방문, 50개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시의원, 수원도시재단 관계자,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2023 중소기업 중앙아시아 수출판매개척단'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소재 50개 사 바이어(구매자)를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 일정이다.

수원시는 1개 참가업체 당 현지 10개 사 바이어와 만남을 주선하고 통역과 항공료 50%(1개 사 1인)를 지원한다.

수출판매개척단은 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리는 타슈켄트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25개 사 바이어를 만났다. 18일에는 알마티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리는 알마티 수출상담회에서 카자흐스탄 25개 사 바이어를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판매개척단은 헬스케어, 스킨·헤어케어, 미용, 화장품, 한국식품 등 품목 수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수출판매개척단에 참가한 업체는 ▲건강한스푼(영양제 등 건강식품) ▲뉴트리케어(피부 마사지기 등) ▲솔룸바이오텍(버섯 등 전통 차류) ▲유리코스(스킨 케어 제품) ▲크로마흐(바이오 화장품) 등이다.

2021년도 기준 연간 무역 수입액은 카자흐스탄 약 65조 원, 우즈베키스탄은 약 37조 원에 달한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1·2위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비상시 대응 능력 강화'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도, 공공기관·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제414차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제414차 공습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공 대피 훈련은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도청사에서도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3,181명의 직원들이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지하 2층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전 기관 직원 및 학생들은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공습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으로 비상시 행동과 대피요령을 습득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훈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도민들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주변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인권감수성의 향상을 위한 '인권 아카데미' 개최

오산시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아카데미는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교육이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시민감사관, 3개 동 통장단협의회, 노인대학 학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의 주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나의 역할 ▲노인의 삶과 권리 ▲생활 속 인권이야기 ▲지역사회 리더의 인권감수성 향상 ▲기후위기와 인권 등을 다룰 예정이다.

15일 첫 인권 아카데미가 열렸다. 인권정책연구소 이명희 강사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나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인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 아카데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위해 국지도 82호선 확장해야"

정부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용인특례시가 남사읍과 화성을 잇는 주요 길목인 국지도 82호선의 확장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구간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인근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확포장에 나서는 등 국가산단 조성에 앞서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방안을 찾고 있다.

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용인 남사 ~ 화성 장지) 개설공사가 설계 단계에서 답보상태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설계하고 경기도가 시행한다. 당초 총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은 4차로로 확장, 3.4km 구간에는 2차로를 신설, 1.7km 구간은 2차로를 개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은 설계 99%에서 멈췄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 사이 물가와 지가가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급증하자 급기야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이 도로엔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다. 2022년 일평균 교통량은 1만 7400대로 2차로 적정교통량(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7300대의 두 배를 웃돈다.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동절기에는 결빙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82번 국지도의 이같은 실정과 시민 불편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회동해 국지도 82호선 용인 남사 ~ 화성 장지 미확장 구간의 조기 착공 등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함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4차로 확장을 계획했던 1.7Km 구간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KDI는 5.1Km 구간에 대한 2차로 신설, 도로 개량 등 사업 변경안을 놓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1.7Km 구간의 4차로 확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와 서남부 물류단지 구간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한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서남부 물류단지는 이달 중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다. 시는 물류단지 조성과 병행해 95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지도82호선은 국가산단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접근도로로 해당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국가산단 조성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다"며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지도 82호선은 반드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 국지도82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안성맞춤아트홀, '이억배 그림책 원화전' 개최

안성맞춤아트홀은 오는 6월 9일부터 29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에서 토속적이고 예스러운 이야기로 채워진 이억배 작가의 '이억배 그림책 원화전 _ 이야기는 가라 하고 그림은 멈추라 한다'을 개최한다.

1986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80년대 민중 미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현실을 그림으로 말해온 이억배 작가는 90년대 들어 문화를 어떻게 삶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그림책 작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그는 '솔이의 추석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과 진솔함 감동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작가로 자리매김과 한국 그림책 발전에 견실한 기반을 일구었다.

깊이 있는 그의 작업은 2020년 1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으로 미국 전미 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 배첼더 어워드에서 처음으로 한국 작가의 그림책이 수상되는 영광을 안겨주었으며 미국의 대표적 전문 서평지 '커커스리뷰'에서 '올해 최고의 그림책'으로도 선정되며 한국적인 색채를 가진 그림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전시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우리 주변의 풍경을 익살맞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이억배 작가의 그림책 원화 130여 점과 25년 동안 안성에서 작업하며 그린 스케치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 장의 그림, 한 편의 이야기, 한 권의 그림책과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예술적 만남의 경이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양시현/기자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 이어져 … 5월 중 3명 1200만원 기탁

안성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열린아트 이용태 대표가 시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인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기탁, 6호 고액기부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성시 지인 소개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또한 지난 5월 10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임종윤 씨가 고향은 아니지만 안성시 대덕면에 40년 이상 거주 중인 아버님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 해 5호 고액기부자가 된 바 있다.

그 밖에도 장한주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안성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지난 9일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용태 ㈜열린아트 대표는 "평소에 기부를 생각해 오다 올해 새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되어 동참하게 됐다" 며 "늘 생각해 오던 기부를 안성시와 인연이 되어 실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에 애정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계신 기부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아진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 하겠다"고 전했다.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안성시 지역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시흥시 ' 2023 공정무역 페스티벌'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가치 확산 앞장

시흥시가 지난 13일 시흥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2023 시흥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정무역 페스티벌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야외에서 개최됐다. 시흥시의 2022년 공정무역도시 재인증과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의장, 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이 참석해 소중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시흥도시공사와 공정무역 참여기업 8개소, 사회적경제 참여기업 19개소 등 총 29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민 1,600여 명 이상이 참여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페스티벌은 ▲댄스/라디오DJ체험/마술/버블공연 등의 식전행사로 꾸며졌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유공자 표창 ▲공정무역 활성화 협약식 ▲Healthy-up(건강증진) 협약식 ▲감사표 전달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환경보호 중 하나로 진행된 행사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QR코드를 이용한 전단지, 자연 분해되는 포장을 이용한 꽃다발 등을 사용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공정무역 페스티벌은 '가족의 달 5월'에 걸맞게 공정무역 제품 만들기, 천연 염색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의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했다. 또한, 공정무역 개념을 풀이한 연극, 퀴즈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했다.

기념식에서는 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4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기관 2개소에 표창을 수여했으며, 공정무역 활성화 상호협력 협약식과 Healthy-up(건강 증진) 상호협약식이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 시흥시가 보여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공정을 추구하는 정신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오늘 개최하는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모쪼록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그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판매처 66개소 승인, 월곶역 공정무역 판매장 Meet(미트) 설치 등 공정무역 제품 판로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공정무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구제역 방역의 선제적 대응 나서

화성시가 16일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방역사항을 점검했다.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한달 공수의사 14명을 동원하여 소, 염소 1,026농가 54,100두에 대한 일제접종을 완료했으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추가 접종을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양돈농가에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하기로 했다.

화성시에는 현재 1,200여 농가가 226천마리의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중이다.

임종철 화성부시장은 "충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발생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화성시에서는 동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역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우제류 농가에 전화예찰 및 SNS을 통해 의심축 신고요령 등의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예방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임을 농가에 알리고 농가별 백신 접종 내역 및 농가별 항체형성율을 관리해 왔으며, 11일부터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부산시, 원도심 구석구석을 관광명소로!

커피와 수제맥주 도시 부산, '중부산 커피위크' 운영… 커피 브랜드 및 중부산권 지역 카페 홍보

부산시는 제8회 부산원도심활성화 축제 '부산 고(Go) 페스티벌'이 개최(5.20.~5.21.)되는 가운데, 축제 기간 외에도 원도심의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다양한 골목길 중 전포공구길과 망미골목, 봉산마을 마실길을 '21년, '22년 각각 선정해 부산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 선정된 ▲영도 '봉산마을 마실길'에는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영도 봉산마을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원도심, 영도의 곳곳을 즐길 수 있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6월 초부터 10월까지 ▲야호(夜好) 봉산 투어, BBB(베리, 봉산, 버스) 체험 투어, 2030 불토 야경투어를 매주 금·토요일 1박 2일 또는 당일 상품으로 운영해 봉산마을 블루베리 체험 및 숙박, 흰여울 문화마을, 깡깡이 예술마을, 봉래동 물양장 커피특화거리 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봉산마을 자유투어 및 영도-봉산 스탬프 투어의 경우 영도 주요 관광지 방문 후 스탬프 인증 시 기념품 및 영도 주요 관광지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골목길 관광자원화사업 대상지로 '다대포 다비치 골목'을 선정해 '바다'와 '필환경'을 주제로 관광 상품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동부산권에 집중된 관광대상지를 서부산권과 원도심 지역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3주간 매주 각 골목길에서 '부산 골목 페스티벌'을 추진해 그 지역만의 색깔을 살리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부산 전역 곳곳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023 세계 최고 여행지'로 부산이 선정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커피와 수제맥주를 부산 전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봄'-커피, '여름'-맥주, '가을'–피크닉(커피+맥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부산, 서부산 등 권역별로 고루 진행한다. 지난 4월, 커피의 성지인 부산을 알리기 위해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 KNBC & SCA Market'에서 '부산 스페셜티 카페 지도'를 홍보물(리플릿)로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는 ▲'중부산 커피위크'를 진행해 부산의 커피 브랜드와 중부산권의 지역(로컬) 카페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권역별 특화콘텐츠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부산 커피위크'는 올해 5월, 7월, 10월 중 1주간 총 3회 개최되며, 특히 지난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커피위크는 영도구, 중구 중심으로 원도심 축제 '부산 고(Go) 페스티벌'과 연계해 진행된다. 일주일간 원도심의 역사와 폭넓은 풍경을 활용한 '스토리&뷰에 취해 살기' 컨셉으로 베이킹 클래스, 커피시음, 바리스타 토크쇼 등 카페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부산권에는 현대미술관 기획전시 및 피크닉 투어, 화명·삼락 생태공원에서의 피크닉 등을 연계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부산권에는 펍 크롤링 투어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엠지(MZ) 세대를 겨냥함과 동시에, 부산만의 수제맥주와 동부산 권역의 화려한 야간경관을 함께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수영구의 썬데이 모닝마켓, 중구의 아트스테이 운영을 통해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규원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은 지역(로컬)카페, 골목길, 숨은 야경과 휴식 공간 등 모든 곳이 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고, 구석구석 이야기 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라며, "부산 안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문화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며, 권역별 홍보단, 도보앱 운영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콘텐츠로 채우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예천군청 조수빈 선수, 양궁 여자개인전 우승 쾌거

제5회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우승, 매일 밤 야간 특별훈련을 통해 실력 쌓아

예천군청 소속 조수빈 선수가 인천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개최된 '제5회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여자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45개팀 20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고등부·대학부·일반부를 통합한 올림픽라운드(70m 리커브)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자개인전은 조수빈 선수가 최종 우승을 했으며 이어 김채윤(현대모비스) 선수 2위, 김예후(경희대) 선수와 조한이(순천여고) 선수가 나란히 3위를 차지했다.

조수빈 선수는 2021년 예천여자고등학교 재학시절 전국상위권에 입상하면서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예천군청에 입단한 이후 매일 밤 야간 특별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는 등 훈련에 집중하고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

김도윤 체육사업소장은 "그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준 양궁선수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조수빈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어르신이 행복한 함께하는 중구' 2023 중구어르신한마당 개최

대구 중구는 5월 19일 경상감영공원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함께하는 중구' '2023 중구어르신한마당'을 개최한다.

활기찬 노년의 모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오감만족형 문화의 장이 될 2023 중구어르신한마당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중구의 중심인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다.

중구청이 주최하고 중구 노인복지관(관장 김창규)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중구 어르신들의 장기를 찾는 '내가 왕!이다', '스마트폰과거시험', 경상감영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는 '중구 주민 사생대회', 중구지역 경로당 연합 윷놀이한마당, 스타일링·테마한복 체험 및 프로필사진 촬영 '인생사진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장터', 23곳의 중구지역 복지기관 및 단체의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2023년 중구어르신한마당 행사는 5년 만에 다시 치러진 행사로 중구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활기찬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구미시, 환경관리원 체력시험…새로운 변화 시도

8명 모집에 140명 지원, 경쟁률 17.5대 1기록

구미시는 16일 구미체력인증센터에서 2023년 환경관리원 공개채용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시는 만 20세 이상 구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4. 17. ~ 4. 19.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을 위한 8명 모집에 140명이 신청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날은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61명을 대상으로 2차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올해 공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력검정방식의 변경이다. 매년 시 자체에서 시행하던 체력검정을 공인인증기관인 구미체력인증센터에 의뢰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체력검정 시험이 환경관리원 선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인된 체력인증기관에 의뢰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목적이다.

체력검정 평가항목은 기존 2종목(윗몸일으키기, 30kg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기)에서 환경관리원 자격 필수 요건인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평가를 위해 국민체력100 인증 종목인 4종목(악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20m왕복오래달리기)로 확대했다.

부상의 위험이 있는 30kg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기는 제외했으며, 평가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국민체력100'을 기준으로 했다.

시는 응시자들의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점수를 합산해 채용인원의 1.2배수를 선발하고 3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이달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동현/기자

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 발대식 개최

관·학 상호협력 바탕으로 청년 유입 및 지역 활성화 기대

영덕군은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한의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세대통합지원센터의 발대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 체결된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육성 및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대구한의대학교는 영덕군과 연계한 생활 인구형 학기(기린도전학기)의 비교과 및 교과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대학원 과정으로 해양교육문화특성화학과를 신설해 영덕군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계획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자리,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대구한의대학교와 우리 군이 다시 젊고 활기 넘치는 영덕군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됐다"며, "이번 발대식을 출발점으로 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영덕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 군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너지효과를 내어 지방소멸에 대응한 관·학 협력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BHC 그룹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은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와 BHC그룹 임금옥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HC그룹은 BHC치킨을 비롯해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 전문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 '창고43', 순댓국 전문점 '큰맘할매순대국', 소고기 전문점 '그램그램', 고품격 족발전문점 '족발상회'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최대 종합외식기업이며, 지난해는 사상최초 매출 1조원을 넘어서 유니콘 기업을 달성을 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성군과 BHC 그룹의 전략적인 업무 제휴로 의성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의성군은 '의성마늘' 브랜드 사용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며, BHC 그룹은 5년간 매년 200톤의 명품 의성마늘을 구매하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스테이크와 파스타 요리, 창고43의 구이용 및 반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의성마늘 관련 제품 개발 및 판매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성마늘뿐만 아니라 의성군의 우수한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천시, 한약축제 기간 탄소중립 홍보 부스 운영

영천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영천한약축제 기간 동안 탄소중립 홍보 부스를 활용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은 영천시와 협약을 맺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축제에 참가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 및 환경상식에 대한 퀴즈 형식의 체험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물과 천연비누, 대나무 칫솔, 천연수세미 등 친환경 물품 약 1,000여 개를 배부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간단한 퀴즈, 환경보호를 위한 나만의 방법 발표하기 등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냉방기 전력 사용량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분리배출 실천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실현하기, 나만의 탄소 흡수원(식물) 만들기 등의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와 전단지를 시민에게 배부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 많은 탄소중립 캠페인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울진군, 2023년 경북 동해권 지역 연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울진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모델 개발을 위해 경상북도 및 영덕군과 함께'경북 동해권 지역 연계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가 3억원, 울진군과 영덕군이 각 1억5천만원씩을 부담하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장기적인 수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자원 활용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지역 연계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역자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지역자원 기반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마케팅을 기획하는 기업체를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먼저 창업 기본 교육을 수강 후 심화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완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수 창업자로 선정되면 창업자당 최대 3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울진·영덕군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계획 시 개발비 및 특화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및 (사)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안동시 청년창업펀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권기창 시장 "혁신적 창업생태계 구축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수"

안동시가 16일 시청 웅부관(소통실)에서 '안동시 청년창업펀드 조성·운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창업펀드 조성'사업은 시정방침인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창업·창작도시'실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청년인구 유출, 지역소멸 문제 극복에 단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 절차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와 지역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장, 안동형일자리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펀드 조성과 지속 가능한 창업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권기창 시장은 "투자 유치와 더불어 혁신적 창업생태계의 구축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에 시 20억 원, 정부모태펀드 60억 원, 민간 투자 20억 원 등의 출자를 통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동형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2023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 '문경돌리네습지 사진전' 개최

문경시는 2023년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여 운영하는 습지 주간인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문경돌리네습지 일원에서 '문경돌리네습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국내 유일한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문경돌리네습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으며, 전시 작품들은 돌리네습지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한 사계절의 모습과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등을 전시한다.

습지 주간 기간에 상시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습지를 방문하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세계 습지의 날은 람사르협약에서 1996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제정했으며, 환경부에서는 2002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5월 중 습지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경돌리네습지는 희귀한 지형에 형성된 습지이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소중한 자연환경이다. 이에 문경시는 세계적으로 보전해야 할 국제 중요 습지로 인증받기 위해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 중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문경돌리네습지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되길 바라고, 문경돌리네습지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통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정전 70주년, 평화를 위한 동맹 "함께 갑시다"

이철우 지사,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 창립총회 참석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서울 용산 육군호텔(로카우스·舊용사의 집)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폴 조셉 라카메라(Paul Joseph RaCamera) 유엔군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함께 갑시다"라는 목표 아래 창립된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 온 유엔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출신 예비역 장성 등 사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021년 11월 유엔사 역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모임 발족을 통해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이날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유엔사(UNC)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를 근거로 미국 주도 하에 창설된 다국적 통합군사령부다.

평시에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위반 상황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위기 완화 및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유엔사 회원국으로부터 전투력을 제공받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강화 등으로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유엔사의 역할이 없다면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통로가 상실되어 전쟁 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에 유엔사는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안보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유엔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협회의 창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한 현 시점에 한국-유엔사친선협회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으로 되새기며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사의 역할을 공고히 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음 달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희생해주신 6.25 참전용사 분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美 전직 연방의원, 경주 찾아'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 선언

경주 방문한 전직 미국 연방의원 6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 표명

경주를 방문한 미국 전직 연방의원 6명이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경주시는 김창준한미연구원과 FMC(전 미국연방의원협회)가 지난 15일 경주를 방문함에 따라 이들을 만나 민간외교를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김창준한미연구원과 FMC의 경주 방문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사단법인 김창준한미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93~1999년까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FMC는 국내 기업인, 지자체 등과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민간 교류 활동을 펴 오고 있으며, 김 이사장도 FMC 멤버다.

이번 FMC 방한단은 김창준 전 하원의원을 포함해 테오도르 요호 전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 일레인 루리아 전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러스 캐나한 전 하원의원(민주·미주리), 스캇 클러그 전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 에릭 폴센 전 하원의원(공화·미네소타) 및 배우자와 가족 등 총 11명이 경주를 찾았다.

이들은 대릉원, 불국사, 경주국립박물관 등 경주의 주요 사적지를 둘러봤다.

경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진 FMC의 경주 방문이 앞으로 양국의 미래 협력관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경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원자력, 전기자동차 산업 등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인 경주가 APEC정상회의의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경주의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테오도르 요호 전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는 말을 전했고,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영 시장은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할 당시 김창준 전 의원과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윤타용/기자

봉화군정책자문위원회, 양수발전소 유치 전폭 지지 표명 !!!

봉화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군민참여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현국 군수와 홍연웅 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자체 발굴한 군정 시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양수발전소는 지역에 1조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6,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자문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 남회룡리 일원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과 낙차도가 우수해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최적지로 조사된 바가 있다.

홍연웅 봉화군 정책자문위원장은 "신규양수발전소 유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군에 천재일우의 기회다."며"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신규양수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우리군만이 가진 차별화된 시책 발굴에도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신규양수발전소 유치에 우리군의 전 행정력과 군민의 일치단결된 마음을 모으겠다."며 "유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제414차 민방위 훈련 실시, 경북도 위기 대응 역량 회복!!

안보 위기는 없다. 평화를 위한 준비, 6년만 민방위 훈련 재개

경북도는 안보·재난사태로부터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6일 제414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방위 훈련은 최초 1972년 '제1차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시작해 1975년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 개념을 확대해 지속 됐다.

2017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및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되던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자 실시했다.

공공 기관 및 학교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제414차 민방위 훈련은 보완사항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순차적 훈련 범위를 확대해 을지연습 기간(8월 말)에는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은 경북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14시부터 20분간 진행됐으며, 공습경보 안내방송을 시작으로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청내 직원이 지하시설 및 인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비상상황 개인보호를 위한 라디오 방송 청취, 심폐소생술, 소화기 및 방독면 사용 요령을 교육했다.

도내 23개 시군 또한 시·군청을 중심으로 민원 업무 및 현업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이번 민방위 훈련에 총력 참여해 비상상황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이었지만 각 기관 직원들의 투철한 안보정신과 관심으로 준비된 비상 위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는 8월 전 도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도민 안심, 평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체육회, 지역사랑 기부 활동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방문해 후원금 기탁

군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영양군 체육회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을 방문하여 영양산나물축제에서 퍼팅의 달인을 모시는 체험비로 모은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후원했다.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월산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중 영양군체육회에서 진행한 퍼트의 달인을 모시는 체험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년 영양군체육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건강한 체력,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재서 영양군체육회회장은"장애인의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최은영 관장은"지역사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영양체육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토우의 어린이 음악회'24일 선보여

경주시립신라고취대는 올해 세 번째 기획공연인 '토우의 어린이 음악회'를 이달 24일 19시 30분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우리 귀에 익숙한 국악 동요에서 창작동요, 애니메이션 주제곡까지 국악버전으로 편곡해 아이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재밌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악 연주로 새롭게 탄생될 동요들은 15명의 연주자가 조화로운 하모니는 물론 생활 속 친숙한 다양한 소리들을 국악기로 표현함으로 우리 전통악기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음색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공연 예매는 경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나 티켓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시립예술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장료는 전 좌석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 인형 '토우'로 우리 음악인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 남녀노소에게 들려주는 공연을 기획했다"며 "이날 공연에 참석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관광거점도시 안동, 세계 최대 한류 페스티벌서 K-관광 메신저로 떴다

KCON JAPAN 2023, K-Pop, 전통 체험 등 사흘간 12만 3천명 방문

안동시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CJ ENM이 주최하는 'KCON JAPAN 2023'에 참여해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

'KCON'은 한류 콘텐츠와 비즈니스가 결합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 K-라이프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한류 페스티벌이다.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9개 국가에서 29회 개최되며, 136만 명 이상의 누적 오프라인 관객 수를 돌파했다. K-Pop 스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K-Culture 산업의 최신 동향을 전하는 컨벤션과 팬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KCON JAPAN 2023에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12만 3천 명의 관객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홍보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로서 'K-TOWN' 컨벤션 부스에 참가해 한류 문화 팬들에게 안동을 소개하고 주요 관광 콘텐츠를 홍보했다. 전통한복 체험과 SNS 이벤트를 진행하며 안동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장을 선보여 현지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안동이 가진 역사, 문화, 관광콘텐츠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이 뜨거워 사흘간 1만 3천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2천여 개의 안내 책자 및 기념품이 모두 소진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안동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컨벤션 참가를 통해 안동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라며 "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진행하며, 안동시를 한국 최고의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행사 참가를 통해 안동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롭고 다채로운 관광 홍보 콘텐츠 기획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반려견의 봄날 산책

영양군 산림청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숲속을 거닐며 즐길 수 있는 반려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오늘, 나 반려견의 반려인이 되다' ▲'댕댕이와 함께 떠나는 숲속여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해설사의 도움을 받으며 '반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고, 변려견에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나무내음 가득한 숲속의 정취를 선물해 주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검마산자연휴양림은 휴양관 16객실 중 7실, 야영장 24면 중 9면을 반려견 동반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위해 산림욕장 내 반려견 쉼터, 반려견 전용놀이터 등 일반 이용객과 마주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5월의 따스함과 숲이 주는 녹색공기를 마시며 반려견과 잊지못할 추억의 휴양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관리와 서비스로 이용객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지역 청소년 독립운동 정신 일깨워

역사를 지킨 선조들을 기억하는 100년간의 역지사지 캠프 운영

청송군청소년수련관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고등학생 25여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100년간의 역지사지 캠프'를 진행했다.

100년간의 역지사지 프로그램은 청송군청소년수련관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연계하여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지킨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일깨우고, 독립유적지 탐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총 12회기로 운영되며, 역사 이론교육을 통해 한국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청송·대구·서울·강화·파주 등의 독립운동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이다.

이번 1회기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독립운동사 강의, 신흥무관학교 체험, 내앞마을 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선조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열정과 마음이 느껴졌다."며,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입으면 시원한 '영주 풍기인견' 광화문광장에서 만나요

6월 2~3일, '2023 영주 풍기인견 서울페스티벌' 개최

영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 영주 풍기인견 서울페스티벌'이 6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매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서울을 찾는 '영주 풍기인견 서울페스티벌'은 '에어컨 원단', '아이스 실크(ice silk)'로 불리는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서울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행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어 풍기인견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행사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시·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해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풍기인견 제품을 접할 수 있으며, 풍기인견 제품들로 꾸민 포토존을 만들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풍기인견 인생샷' 즉석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한다.

또, 2일 오후 7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개최되는 풍기인견 패션쇼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인견과 대마의 복합직물 원단을 이용해 제작한 의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여름에 특히 인기 있는 풍기인견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해 침체된 풍기인견 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에서 풍기인견과 함께 시원하고 신나는 도심 속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풍기인견은 나무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순수 식물성 자연섬유로 가볍고 시원하며 착용 시 촉감이 상쾌하고 땀 흡수력이 탁월한 친환경 섬유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피부가 여린 갓난아이부터 알레르기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등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잘 맞다. 연로하신 노인 분들에게는 더 없는 효도 상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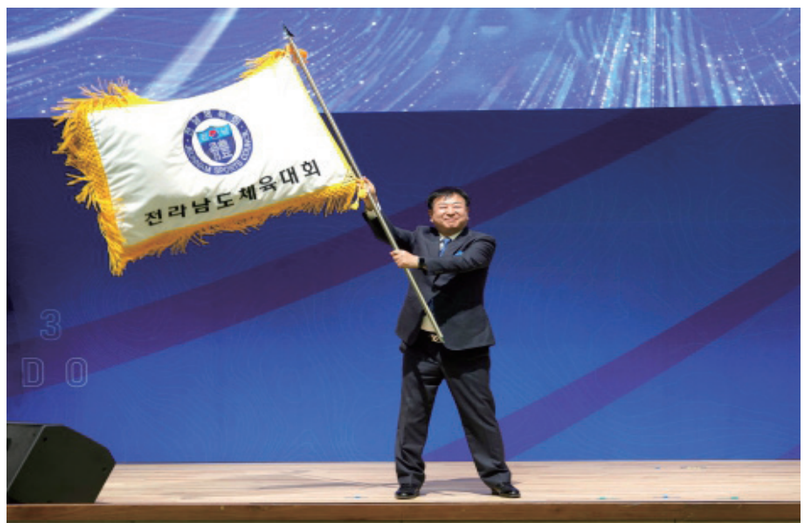
특히 풍기인견은 영주 풍기지역의 대표 특산물로서 1934년 풍기방직 설립이후 현재까지 전국 인견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공산품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의 웰빙인증을 받은 후 현재까지 15년 연속으로 해당 인증을 지속 획득한 브랜드로, 2009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2012년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등의 객관적인 우수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4년 4월"영광에서 만나요"

영광군 2024년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본격 준비 돌입



전남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2024년 전남체전이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영광군은 지난 15일 완도군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전남체전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받고, 제63회 전남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영광에서 15년 만에 개최될 제63회 전남체전을 앞두고 올해 개최지인 완도군에 홍보단을 파견해 홍보물 배포, 전문 MC의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차기 개최지 영광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폐회식에서는 다음 개최지로서 대회기를 인수받고 영광군 홍보영상을 상영해 전남도민의 축제의 장이 될 2024년 전남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강종만 군수는 제62회 전남체전이 완도군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영광군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내년에 개최될 제63회 전남체전에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63회 전남체전은"성공·행복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전, 화합·희망체전"을 기본목표로 2024년 4월 중 4일간 영광에서 개최된다.

윤경호/기자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 인천에서 베일 벗는다.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홍보 운영

남원시는 오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드론,UAM으로 바꾸는 새로운 일상, 드론 교통 · 배송, 레저스포츠!"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4회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가 주최)에서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엑스포를 홍보한다.

홍보는 컨벤시남원시관에서 이루어지며 VR체험, 레이싱트랙 모형, 마스코트 조형물, 포토존 설치를 통해 미리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 레저스포츠 엑스포를 홍보하게 된다.

특히 인천에서 열리는 2023 FAI 코리아 드론 레이싱 월드컵 등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출전하게 되는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은 국제항공연맹(FAI) 주관 드론 스포츠대회 중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써 참가선수들이 국가대표팀, 개인종합, 주니어, 여성 부문에서 총상금 10만달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2018년 1회, 2019년 2회 대회가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리게 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드론 관련 박람회 중 최대규모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과 드론 레저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엑스포도 레이싱 대회 기간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와 함께 개최한다.

엑스포에서는 해당 분야의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 학교들이 참여하여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미래를 만나보는 자리로 특히 드론축구, 컨퍼런스, K-POP콘서트,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10월에 열리는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를 인천에서 알리게 됐다면서 이번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기간 동안 남원을 전국에 열심히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위한 전주한옥마을 체험지도 제작

관광거점도시 전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국·영문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제작·배포

관광거점도시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험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사업체 전수조사를 거쳐 '국·영문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지도'를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아태마스터즈대회 개막식 홍보부스에서 처음 배포된 전주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지도는 국제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전주의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된 지도에는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공연, 다도음식, 생활공예 전통공예, 기타(글쓰기, 놀이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생활공예체험 24개소, 다도음식체험 6개소, 전통공예체험 10개소, 전주한옥마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복 등 의상대여업체 27개소의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특히 영문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업체를 별도로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주만의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가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 것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전주시를 찾은 외국인은 월간 5000명을 넘을 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난 3월 체험 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업체 방문 1:1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배포된 영문 체험프로그램 지도는 이 전수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첫 번째 성과물이다.

시는 체험 프로그램 전수조사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에 맞는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주 관광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전주한옥마을의 체험프로그램 현황 및 영문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으며, 민간 사업체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민족도 제고를 위해 전주한옥마을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순천시, 풍덕경관정원 튤립 구근 나눔행사 성료

3천5백가구 88단체 참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순천시는 지난 15일을 끝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과 함께 풍덕경관정원을 수놓았던 튤립 구근 130만 본 이상을 시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번 튤립 구근 나눔행사는 7일, 9일, 14일, 15일 등 총 4회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시민 3천5백가구와 88개 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총 150만 본 중 90%에 육박하는 130만 본 이상을 분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올봄 최고로 멋진 튤립꽃을 선물받았는데, 구근까지 시민에게 돌려줘서 고맙고, 내년에 예쁜 튤립꽃을 피워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만족해하며, 정원박람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환상적인 봄의 꽃 잔치를 마친 풍덕경관정원은 16일부터 로터리(경운) 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여름옷을 갈아입게 되며, 오는 6월 15일부터 코스모스, 버들마편초, 칸나 등 12종의 완전한 여름꽃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여름철 볼거리를 위해 동천변에 다양하고 화려한 초화류와 입체적인 수국 쉼터를 조성해두었고, 풍덕경관정원 여름꽃을 조성해가는 광경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며, 구간별 식재로 공백기를 최소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준/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아동, 임실치즈 체험학습

완주군 드림스타트 아동 30여명이 임실치즈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피자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야외공연, 유가축장, 트릭아트존, 롤라이더, 역사문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탐방했다.

또래 친구들과 배려·협동하며 치즈와 피자를 만드는 경험을 쌓았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한 아동(초등학교 4학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며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치즈와 피자를 만들어야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했다.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야외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치즈마을을 탐방하며 큰 활력을 얻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정 내에서 체험학습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드림스타트팀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4가지 영역(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통합돌봄·헌법 수록·국제연대로 '확장된 광주정신' 실현"

"5·18은 존엄·자유 향한 투쟁…헌법 수록으로 전국민 뿌리내려야"

"5·18정신은 80년 5월 독재정권에 저항해 싸운 시민군과 이후 진실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까지 확장돼야 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에서 '민주주의, 모두의 자유'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5·18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정신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다"고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유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근대화를 위해,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를 유보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강 시장은 "광주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80년 5월 독재정권에 저항해 싸운 시민군과 이후 진실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행위까지 확장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미얀마 등 민주화 투쟁 중인 이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돌봄'으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은 오늘날 광주에서는 광주형 보편복지제도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으로, 국제적으로는 미얀마를 비롯한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포용·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5·18정신은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모두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정신이다"며 "이 정신은 역사적으로 1980년 5월 광주라고 하는 구체적 시간·장소에서 탄생했지만, 인류보편의 가치와 이상에 맞닿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5·18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자 사실상 이견이 없는 사안이므로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더는 왜곡과 폄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광주정신을 전 국민에 확산하고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5·18은 특정인·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5·18은 1980년 5월 당사자에 국한돼 있지 않다. 5월의 승리는 시민군과 시민의 하나됨으로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80년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계승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모든 '나'-들의 5·18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끝으로 "5·18정신은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줬던 위대한 나눔과 돌봄 정신에서 비롯됐고,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이 제도와 정책으로써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그 정신을 되살려 제도로 뒷받침하고, 시정방향도 언제나 시민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5·18기념재단이 주최한 '광주민주포럼'은 14일부터 19일까지 세계 각국의 민주인권활동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토론의 장이다. 올해는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김병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수산단, 세계 제1의 석유화학단지로 조성"

도민과의 대화…"남해안 해양관광벨트·세계섬박람회 등 지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노후 여수국가산단을 대개조해 세계 제1의 석유화학 단지로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수시민과 함께한 도민과의 대화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광일·최무경·최병용·강문성·서대현·주종섭·최동익 전남도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최홍범 여수경찰서장, 박제수 여수해경서장, 이달승 여수소방서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6년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추진되도록 김 지사가 많은 힘을 썼다"며 "하지만 아직도 전남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국제컨벤션센터와 건설 중인 교량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여수국가산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환경 구축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노후 신호등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남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여수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과 즉문즉답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정기명 시장에게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개조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을 세계 제1의 석유화학단지로 만들겠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수산단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공용파이프랙 구조진단 및 지진재난대응 통합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며 여수 개발 방향을 밝혔다.

또 "여수광양항과 묘도 투기장을 재개발하고 낙포 부두 리뉴얼을 통해 항만물류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화태~백야 연결도로, 경도 진입도로, 금오도 해상교량을 개설하고 신북항 계류시설, 여수신항 크루즈 부두를 확장하겠다"며 "도시재생,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어촌 뉴딜 사업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역 명승지 향일암, 진남관, 금오도 비렁길을 개발해 더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도록 힘쓰겠다"며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명품 해양레저 휴양지로 만들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전라선 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은 온라인으로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지원비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쌍태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공통 부모교육 지원비를 증액하고, 쌍태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여수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요청, 최근 비로 인해 아파트 누수와 침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863호선 도로 확장, 국도 17호선(돌산 신복~우두간) 도로 확장,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조성, 여순사건 사실조사원 충원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관련 실·국장과 함께 재정지원과 정책 검토를 약속했다.

정해명/기자

제2회 함평아카데미 24일 개최…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강연

–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서 오후 3시 개최 –
–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 예방' 주제로 진행 –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제2회 함평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다.

함평군은 "제2회 함평아카데미가 오는 24일 오후 3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권 교수는 일상에 파고든 범죄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경찰청 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로,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관,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경찰 최초 프로파일링팀 창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최근에는 'tvN_유퀴즈', 'tvN_알쓸범잡'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고 있다.

함평아카데미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인구경제과(☎061-320-176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함평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200만 도민 화합의 장 '전라남도 체육대회' 폐막

종합 1위 여수시, 2위 광양시, 3위 목포시

전남 완도군에서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된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지난 15일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22개 시·군 선수단이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여수시가 종합 1위, 광양시가 종합 2위, 순천시가 종합 3위, 목포시가 종합 4위, 완도군이 종합 5위, 신안군이 종합 6위, 영암군이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입장식 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단에서 수여하는 입장상은 완도군이 1위, 보성군이 2위, 목포시가 3위를 차지했으며, 작년보다 종합 순위가 향상된 시군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완도군이 1위, 보성군이 2위, 화순군이 3위를 장려상은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이 수상했다.

최우수 선수는 육상 종목에서 3관왕을 달성한 여수시 배건율 선수, 역도 종목에서 9연패를 달성한 고흥군 김경희 선수가 선정됐다.

함평군 선수단이 모범 선수단상, 전라남도축구협회가 모범 종목 단체상을 받았다.

개최지 완도군은 총점 3만 680점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입장상 및 성취상도 1위를 차지하여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신우철 조직위원장는 환송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200만 전남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체전, 도민의 긍지를 높여준 체전이었으며, 우리 완도가 스포츠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됐다"면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큰 울림을 전해준 선수단과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해남 매일시장 야간개장"금요일엔 야시장으로 오세요"

오는 19일부터 7월까지 총 5회 야간개장 행사

해남군 해남읍의 매일시장이 야시장 행사를 개최한다.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은 오는 5월 19일과 6월 9일, 23일, 7월 7일, 21일에 걸쳐 총 5회 열린다.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야시장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매일시장 털어볼까'를 주제로 시장을 야간 개장한다. 시장 내 먹거리 판매와 함께'보이는 라디오'운영,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매일시장 대표 먹거리인 통닭, 튀김, 분식, 국화빵 뿐만 아니라 각종 전, 낙지·바지락 회무침 등 다채롭게 판매될 예정이다.

보이는 라디오 운영 부스 운영은 즉석에서 시장 상인 및 이용객 인터뷰 이벤트와 시장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신청곡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매일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기획, 운영될 예정으로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주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갖고, 재개장한 해남 매일시장은 총 7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2월 한달간 매일시장 가는달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기온이 점점 따듯해지는 봄철을 맞에 군민들에게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 전통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많은 이들이 방문해 해남의 맛과 멋을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선애/기자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농가 일손부족 해결 노력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번기를 맞이하여 부족한 농작업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화순의 주요 작물 특성상 4월부터 9월까지 일시에 많은 농작업자가 필요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농작업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자 감소로 인해 농가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려고 해도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내국인 농작업자 희망 농가를 위한 농작업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이장 회의, 작목반회의 방문 소개, 현수막,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하는 등 센터의 전 직원이 농작업자 모집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355 작업반을 구성하여 13개 반 230여 명을 대상으로 종일반, 파트타임반, 주말반, 희망 주중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의 특성에 맞는 농작업자 지원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은 농가의 신뢰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다.

특히, 민선 8기 구복규 군수의 공약과제 중 8대 추진전략인 "고소득 창출로 농민이 잘사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센터 인력을 충원했고, 농작업자의 출·퇴근 수송을 위한 차량을 확보하여 농가와 작업자 간 원활한 중개 방식을 구축했다.

또한 화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입국하여 희망 농가에 배치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들은 농장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국 180여 센터 중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연간 누적 11,300명을 지원했다.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모범사례발표와 우수사례집에 게재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윤경호/기자

전남 목포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상담원대회

전라남도는 1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상담원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소진 예방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제17회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상담원 대회'를 개최했다.

'하늘·산·바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원, 폭력피해 여성지원기관 시설장과 1366센터 전국 상담원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식과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목포지역 관광지 탐방 등 전국 상담원 간 친선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변현주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장은 "사람과 조직을 끌어당기는 의사소통 기법 교육을 통한 상담원 역량 강화로 피해자 초기 상담 시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며 "여성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원의 헌신적 활동 덕분에 피해 여성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다"며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전남의 멋과 맛을 마음껏 즐기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꼭 다시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산과 바다가 하나 되는 목포 고하도 데크길 걷기, 하늘에서 산과 바다를 만나는 해상케이블카 체험, 맛의 고장 목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을 경험하며 재충전 시간을 보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초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센터장 정미남)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센터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차례 나눠 진행된다.

정해명/기자

구례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 점검

전남 구례군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사항이다.

점검은 실무자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전담 부서 순회 점검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과 관련하여 지난 12일에는 중대 재해 대비 의무 이행 사항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 함양과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한 사전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전담부서인 안전교통과 중대재해예방팀이 주관했다. 전 부서 실무자 50여 명에게 사고 발생 시 적용받는 법령의 근거, 처벌 수위,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 1호, 2호 판결내용 등을 교육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산재 예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 위험성 평가, 공직자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작업환경측정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파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무인점포 안전 챙긴다…영등포구, 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 • KISA 협약 체결

5월 16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무인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해 협약 체결

영등포구가 16일 영등포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무인점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조창배 영등포경찰서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심기술을 통해 무인점포 내 범죄를 감소시키고 소상공인,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 기관은 ▲무인점포 대상 안심기술 확산과 적용 ▲무인점포 대상 범죄율 변화 분석 ▲안전한 무인점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무인점포 관련 소상공인, 수사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홍보, 인식제고 활동의 공동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

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추진 중인 무인점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범구로 선정됐다. 지역 내 위치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절도, 기물 파손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인증 장치, 지능형 CCTV 등이 설치된다.

5월 기준, 지역 내 무인점포는 총 167개소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무인점포 안전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은 물론 무인점포 점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무인점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경 네트워크 구성, 간담회 개최 ▲아동보호 캠페인 실시 ▲무인점포 내 양심거울, 안내판 설치 ▲동별 직능단체 정기적 순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무인점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곳 적발

무신고 영업, 영업장면적 변경 미신고, 조리장 위생불량 업체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의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조리실 위생불량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남도, 도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도내 정수장 50곳을 대상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름철을 전·후 발생하는 소형생물 유충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정수처리공정 내 유충 서식환경 및 서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등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과 더불어 도-시군 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정수처리 전 공정에 대한 유충 모니터링 실시 여부, ▲정수장 주변 유충 서식 우려 환경정비 ▲정수장 위생시설 관리 상태, ▲현장에서 정수 공정별 유충 모니터링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결과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수용가)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시설개선 또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정수장 유충 발생 및 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총 38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 깔따구 성충 또는 유충 유입을 방지하는 미세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37개 정수장 및 18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82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내에서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마이크로스트레이너, 정밀여과장치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5월 15일 창원시 석동정수장을 점검 마친 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어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의 경우 기술 진단 및 지원과 더불어 올해 9월 예정되어 있는 정수장 운영인력 향상 교육을 통해 수도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구미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방범용 CCTV 3,182대 연계, 24시간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

구미시는 원룸밀집 지역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CCTV 39대를 추가 설치해 총 210대의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CCTV를 선정해 이동식 스마트 CCTV 24대, 고정식 CCTV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이동식 스마트 CCTV는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촬영되며,'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중'이라는 경고 방송이 송출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의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3,182대를 활용해 불법투기 발생 시 즉시 적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41만 시민의 양심의 눈을 빌어'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순 자원순환과장은"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행정적인 감시보다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자발적인 실천이 선행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나와 이웃이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충남도, 금산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박차'

김태흠 지사,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7번째 일정으로 금산 찾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금산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일곱 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생명의 집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금산 인삼약초 활성화 △국지도 68호선 시설 개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먼저 금산 지역 약초산업 육성과 관련해 충남 남부출장소 내에 인삼약초세계화과를 신설한 사실을 소개한 뒤, "이는 인삼뿐만 아니라 약초 관련 정책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도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연내 약초 소형저온저장고 10동을 개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 약초 현대화 가공시설 등 시·군별 약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 인삼산업 진흥 및 고려인삼 전략산업 육성, 기업·농가 경영 환경 개선을 주도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도립으로 격상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국립기관 승격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산군이 설치·운영 중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1실 6팀 1센터에 34명의 임직원이 인삼 관련 홍보·마케팅, GAP 인증관리,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승격은 고려인삼의 세계화·명품화 주도를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전문기관 연구 및 사례 분석을,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정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립기관 승격을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산과 충남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국지도 68호선 개량 사업은 '금산-진산', '행정-읍내', '한삼천-도산', '연무-양촌', '양촌-벌곡' 등 5개 구간으로 분할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도는 양촌-벌곡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간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켰다.

도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구간별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미 반영된 양촌~벌곡지구는 제6차 국가계획(2026~2030)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교통량·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지도 68호선이 2차로 시설 개량에 그치며 군민 요구에는 다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로 확장을 위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국가계획 변경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나,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보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금산읍 용머리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제원면 명곡3리 군도5호선 확포장 △천을리 배수로 교체 △보석천 유지보수 △남이306호 진입도로 개설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인삼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농촌과 관광·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금산 발전과 충남의 비상을 힘차게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진행한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에서 금산군민들은 17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 중 9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 검토, 1건은 수용 곤란 과제로 넘겼다.

군민과의 대화에 이은 정책 현장 방문은 적병강 적벽교 재가설 대상지 확인을 위해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에서 가졌다.

1998년 12월 준공한 적벽교는(길이 210m, 폭 3m) 현재 교량 폭 협소에 따라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군 추정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적벽교 재가설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금산군에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라며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천안시에서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태백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를 위탁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태백시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예산 약 167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 245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창죽동 및 화전동 제2개간지 일원(면적 193ha)에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는 자동 관수·관비·방제시스템 등의 스마트 영농기반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제센터가 설립되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지원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고랭지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스마트영농확산 기반을 구축하여 이상기후, 노동력 부족, 생산 불안전성 등 태백 농업의 현안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라며, "태백시가 노지 스마트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아산시, 제414차 민방위의 날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진행

박경귀 시장, 대피 유도 요원 동참…실전 같은 훈련과 대응력 강화 강조

아산시는 지난 16일 전 직원 대상 민방위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실제 공습상황을 가정해 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한 공습경보 발령, 직원대피 훈련,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순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됐다.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접 대피 유도 요원으로 참여해 직원들이 대피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박경귀 시장은 "고도화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가 안보에 둔감하고 무심해져서는 안 된다"며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K-반도체 벨트' 청주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반도체의 고집적·초고속·저전력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에 국가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충북은 'K-반도체벨트'의 한 축(청주~괴산~음성)으로서 반도체 생산액 전국 2위,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성과 극대화, 전국 1시간대 접근성 등을 앞세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들었다.

현재 충북 청주를 비롯해 인천, 대전, 경기 용인 등 14개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 반도체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국가산업정책에 미치는 중요성, 지역별 산업 성숙도, 특화산업 등을 종합 고려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계획서를 접수 받았고 17~18일 유치계획서를 평가한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17일에 유치계획서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지자체와 해당 기업에 부지,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 사업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주어진다.

부지 확보, 용수·폐수처리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시설·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한도 최대 1.4배 완화,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정부 연구개발예산 우선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등의 프리미엄이 뒷따른다.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 경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K-반도체벨트' 한 축 청주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상지는 충북에서 청주 4개 산단(오창과학산단,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청주일반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산단)과 음성, 괴산을 포함한 총 6개 거점산업단지다.

이들 6개 산단은'K-반도체벨트'의 한 축을 이루며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 청주는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정책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 첨단기술 기업·방사광가속기 활용 '경쟁력'

청주는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SK하이닉스, 네패스, 키파운드리, 파워마스터반도체, 심텍 등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반도체기업 166개사(2021년 기준, 통계청)가 있다.

첨단 반도체의 핵심은 반도체 칩의 고집적화, 저전력화에 있으며 크기의 한계 때문에 다수의 층을 적층하는 첨단기술이 요구되는데 청주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네패스 등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청주는 기초지자체 중 반도체산업 수출액 전국 6위로 81억7천300만 달러다(2022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반도체는 청주 전체 수출액의 33%를 차지하며 이는 충북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98.8%에 해당한다.

충북은 반도체 생산액이 11조원으로 전국 2위다. 반도체는 충북의 주력산업으로 충북 전체 수출의 약 30% 비중이다.

또 청주는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내 54만㎡ 부지에 원형둘레 800m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고 있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광가속기는 가속된 극자외선, X선 등 빛을 이용해 물질의 구조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백신, 첨단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는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 2027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국 1시간대 접근성은 청주만의 강점이다. 국가교통망 허브인 청주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 산·학·연·관 연계.....앞으로 계획

청주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청주에는 반도체 산업수요에 맞춤형 기술지원이 가능한 반도체실장기술지원센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실장산업협회 등이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 융합부품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주에는 5개 대학(충북대, 청주대, 충청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폴리텍대 청주캠퍼스)에서 매년 827명의 반도체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셋째, 첨단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중이다.

넷째, 지속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수출지원,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명 '원츄원주'로 개편

원주人싸운드, 원펑맨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 제작

원주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명을'원츄원주'로 변경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채널 개편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개편에 맞춰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 업로드 횟수를 늘리는 등 보다 재미있고 활발하게 원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원주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人싸운드'와 원주 소재 기업, 관광지 등을 탐방하고 손수 체험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원펑맨'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원주의 여러 소식을 뉴스 형식으로 보여주는'원주 큐'와 원주시 MZ세대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원주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 브이로그, 숏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이번 확대 개편을 맞이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당첨자는 오는 6월 9일 발표할 계획이며, 이벤트 참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유튜브와 공식 SNS를 참고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원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정을 보다 흥미롭게 홍보하기 위해 원주시 유튜브 채널 개편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원주시 소식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책자 제작

천안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산업 관련 업체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 책자 300부를 제작·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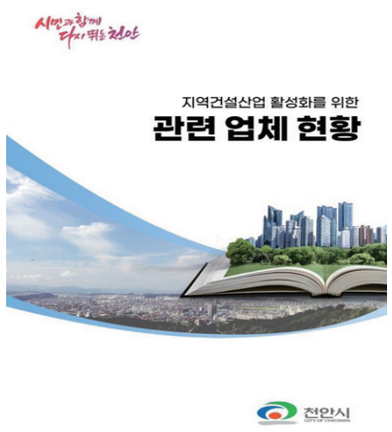
책자는 지역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천안내 ▲건설업체 1,338개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48개사 ▲건설 인력사무소 121개사 ▲자재업체(조달청 등록업체) 630개사 ▲토목측량 81개사 ▲건축사 155개사의 현황을 수록했다.

시는 지역에서 공사 중인 모든 민간·공공기관 공사장과 건설 관련 단체 등에 책자를 배부해 지역업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매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내 공공기관이 타 지역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할 경우 도급자가 이번 책자를 활용해 견실한 지역 내 하도급이나 장비·자재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건설산업 관련 업체 현황을 담은 책자를 통해 관련 업체나 전문가들이 정보를 쉽게 접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잰걸음'

제6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 및 정기회의 개최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제6기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시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 관련 협회, 건설노동조합 관련 단체, 건축사회, 측량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및 공동도급 활성화, 지역건설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 및 활동을 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한계로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논의에 아쉬움이 컸다"며 "지역건설 활성화와 발전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건설산업 종사자분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며,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2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제6기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영기/기자

성장잠재력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2곳 선정

2023년 세종시 글로벌강소기업 비전세미콘㈜·㈜레이크머티리얼즈

전자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수출 선도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글로벌 강소기업 2곳이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트랙'에 선정된 비전세미콘㈜, ㈜레이크머티리얼즈 등 2곳에 지정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제도는 그동안 제각각이던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고, 수출액 규모별로 기업을 선정해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기업은 '유망(10만~100만 달러)-성장(100만~500만 달러)-강소(500만 달러 이상)-강소+(1,000만 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해 통합·시행하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에서는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 부문에 관내 수출 유망 기업 5곳이 신청했다.

이 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비전세미콘㈜, ㈜레이크머티리얼즈 등 기업 2곳이 최종 선정됐다.

비전세미콘㈜는 2001년 3월에 설립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로봇을 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22년에 3,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해 수출뿐 아니라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2017년 9월 설립해 반도체, 발광진공관(LED), 태양광용 트리메틸알루미늄(TMA), 삼중메틸갈륨(TMG) 소재를 생산하는 혁신기업이다.

㈜레이크머티리얼즈 역시 2016년 1,000만 달러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6년만인 2022년에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수출 유망기업이다.

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13종의 해외마케팅(수출바우처) 맞춤형 지원(1년간 최대 1억 원),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등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1년간 최대 2,000만 원), 금융보증(금융기관) 우대 등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 추가된 기술개발사업(R&D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4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재)세종테크노파크, 금융기관 등이 협력한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단국대 수소산업 핵심인재 양성 '청신호'

충남이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인재 양성사업인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연구센터' 1차 공모에 단국대 컨소시엄(연구책임자 이창현 교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단국대는 ㈜롯데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수소저탄소연구소 등 국내 수소기업 25개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등 국내 6개 기관 및 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도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앞서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융합대학원 5곳, 혁신연구센터 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운송·저장 분야의 기술혁신 및 국산화를 주도할 전문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단국대는 1차 공모 선정에 따라 산업부로부터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혁신연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상세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며, 올해 말 최종 평가가 진행된다.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6년간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수소기업과 대학간 산학 교류 프로그램 운영, 수혜학생 취업연계, 재직자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도시 조성,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와 단국대·천안시는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모 사업과 별개로 올 하반기 내포신도시에 '단국대 일반대학원 수소에너지학과'를 설치하는 등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혁신연구센터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수소융합대학원 유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도내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함께 수소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삼성전자X한국은행, '오프라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기술연구 협력' MOU체결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다.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eSE, embedded Secure Element)내에서 이뤄진다.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CC(Common Criteria)에서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6+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양사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연구 협력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CBDC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사간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보안 기술력을 디지털 화폐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며, "양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북도 프랑스 코리아 엑스포 참가, 유럽지역 수출 판로 확대

3일간, 현장에서 총 34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성사

충북도는 충북기업진흥원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프랑스 코리아 엑스포에 충북관을 운영하여 34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 열린 2023 프랑스 코리아 엑스포는 국내기업 200개사 현지 바이어 3,000명, 참관객 20,000명 규모로 B2B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뿐만 아니라 한-프랑스 포럼, 쿠킹 라이브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엑스포에 화장품, 건강식품, 김치류 등을 생산하는 도내 10개 기업과 함께 참가해 전시·상담활동을 펼치는 등 프랑스 시장을 공략한 결과 총 바이어상담 149건 701만 달러, 수출계약 99건 340만 달러를 체결했다.

특히 레보아미는 현장에서 150만 달러를 체결하며 유럽시장에 발돋움했고, 보성일억조코리아는 김치전 현장시연을 통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며 충북 김치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썼다.

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2024년 파리 올림픽 특수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유럽 진출 희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북관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우뚝 설 수 있도록 수출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강진 한우, 지역 핵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 !

지난해 대비 예산 28억 원 증액, 강진 암소 명품 브랜드화 도전

강진군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산지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 한우 브랜드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353만 두로 2017년 대비 50만 두 이상이 증가(17%)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보합세가 유지된 후, 202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 한우 사육 규모는 1,170 농가, 4만 두로 5년 전 대비 1만 두가 증가(37%)해 전국 대비 1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강진군의 농업분야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강진군이 타 지역에 비해 질 좋은 조사료가 풍족하게 생산되는 데에다, 군의 전폭적인 한우산업 지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군은 지난 2013년, 1단계로 '맞춤형 한우개량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간 지속 운영해 품질 좋은 한우 생산과 등급 향상을 이뤄냈고, 2단계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매년 3천 ha 이상의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과 한우 생산기반 기자재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된 수준의 농가 소득 기반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밖에 전남 최초로 사료비 인상분 지원(6억 원)을 자체 기획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 열린 '제38회 전남 으뜸한우경진대회'에서 강진 한우는 시군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군의 지원에 보답했다.

2023년도 4월 기준, 강진군 한우산업 분야 예산은 90억 원으로, 전년('22.7월 기준) 62억 원 대비 45% 대폭 증액 투자하는 등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안 과제인 개체수 증가에 대비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미경산우(200두) 비육 지원 및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고품질 한우개량 사업에 12억 원, 생산기반 시설(기자재 등)에 20억 원,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강진 한우와 농가를 지키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강진 한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최종 단계로 '명품 신규브랜드 개발' 및 연간 1,500두(전체 도축량의 20%)를 목표로 '대도시 직거래 판매망 확대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강진 한우 우수성 홍보 및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대도시 유통업체 마케팅을 실시하고, 신세계백화점(서울 강남, 광주)과 가공도매업체 등에 계약 납품 및 입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직거래 이동판매 행사(과천 바로마켓, 안성팜랜드 등)에 선정되어 매월 2~5회 연중 안정된 가격으로 강진 한우를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명품 신규브랜드 개발은 강진완도축협 주관으로 '1등급 이상 강진 암소 및 강진 귀리'를 활용한 고급육 브랜드화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안에 특허청 등록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코자 지난 15일, 관내 동계 조사료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을 격려하고,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한 강진군 한우산업 4대 핵심과제인 '맞춤형 한우개량, 생산비 절감 지원, 명품브랜드 개발, 직거래유통'을 단계별로 추진해, 농가소득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다문화교육 정책 선순환 강조 "포용력 지닌 경기도, 희망 주는 교육 이뤄져야"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 위해 도교육청, 도청, 지자체가 함께 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경기도가 다문화교육의 선두 주자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해 좋은 사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구축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자체와 소통하며 경기도 다문화교육 방향과 다양한 현장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 사례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 이야기 ▲지역 다문화교육 사례 공유 ▲지역 연계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유민준(고려대 2학년)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성장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학교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김현정 팀장은 "다문화교육 현장 지원 사례와 다문화교육 실천 방안을 공유하면서 지역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경기도의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청, 31개 지자체, 25개 교육지원청, 여러 유관기관의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져 경기도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라 그만큼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다문화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공통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어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 희망을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앞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 제도적 개선과 정책의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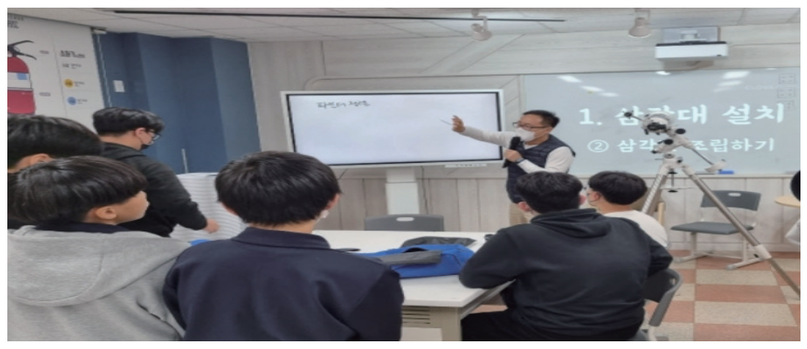
이어 "다문화교육의 지역교육 협력체 구축을 위해 모인 만큼 지역의 좋은 사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의체를 운영해 보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만큼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세계적인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정책적 제도 개선에 대해 경기도청, 도교육청, 시·군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청, 지자체와 권역별 네트워크 조직해 지속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북교육청, '첨단과학 실험기자재 지원 사업' 255교 추진



경북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 활용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225교에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첨단과학 실험기자재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과학실험실에 첨단과학 실험기자재를 확충함으로써 전통적인 과학실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 탐구·실험 수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과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수요를 반영해 교당 1,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대상교는 △학교 교구설비 기준 내의 필수 및 권장 과학 교구 △디지털 탐구 도구(센서), VR·AR 기기 및 콘텐츠 △고등학교 전문교과 및 학생 주도 연구활동을 위한 첨단 과학기기 등을 확충한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2차례의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첨단과학실험기자재 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해 과학탐구·실험이 가능하고, 이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과학 실험기자재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제414차 민방위 훈련 및 자체소방훈련 실시

공습상황 및 화재상황 대응 능력 강화

영양교육지원청은 16일 오후 2시부터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414차 민방위 훈련 및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공습 대비 훈련이며, 자체소방훈련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에 영양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 화재대피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2시부터 안내방송에 따라 지하대피소로 대피했다.

이후 2시 30분부터 적 공습에 따른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민방위 훈련을 연계한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영양교육지원청 자위소방대 역할에 따라 상황전파와 초기 화재진압, 옥외 대피를 진행한 뒤, 소화기 사용 실습 후 교육장의 강평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해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이기대 가족 줍깅 행사 성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이기대 일원에서 초·중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기대 가족 줍깅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체력 증진,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갈맷길 환경 보호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기대 '동생말'부터 '자갈마당'까지 왕복 2.5km를 가족과 대화하며 즐겁게 걸었다. 길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 감사 엽서 쓰기, 가족사진 촬영 등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주요 지점마다 '남부인성교육지원단'과 교사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빗길 미끄럼 방지 등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활동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줍깅 행사를 설레는 맘으로 기다렸다"며 "오랜만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고, 우천에도 행사를 준비해준 남부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종진/기자

용인문화재단, 상상 이상의 환상! '이은결 매직콘서트'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려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6월 10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오후 2시와 6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이은결의 매직 앤 일루션(MAGIC & ILLUSION)'을 선보인다.

이은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루셔니스트'로, 지난 27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들로 정형화된 마술의 틀을 깨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마술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대규모 국제 마술 대회들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대한민국 마술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공연은 이은결의 베스트 퍼포먼스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매직콘서트이며, 흔히 생각하는 속임수와 마술을 '마술사'의 시각이 아닌 '일루셔니스트'로서 마술의 개념을 해체하고, 마술(MAGIC)이 환상(ILLUSION)으로 정립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증강현실, 마임, 드로잉 등 새롭게 시도된 다양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은결만의 독특한 연출로 구성돼 국내 최대 스케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 공연은 6세 이상 관람가로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공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C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가족오락실' 개최

금천구는 5월 20일 오후 1시 금천청소년센터에서 2023년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 '가족오락실'을 개최한다.

금천구가 주최하고 금천청소년센터(관장 유형우)가 주관하는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다. 청소년축제기획단이 직접 전 과정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연 5회의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 축제 '가족오락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참여 대상을 청소년에서 가족까지로 확대하고, 가족 간의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는 '가족오락실'을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체험 부스와 공연으로 구성했던 어울림마당에 가족 참여형 이벤트를 더해 주민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이다.

체험 부스에서는 △ 타로 봐드립니다! '타로와 친구들' △ 모두가 즐거운 '위트월드' △ 인권 척척박사 'UN인권퀴즈' △ 환경방위대 '먹을 수 있는 물병' △ 가족과 친구 알기 '가족&우정 모의고사' △ 미래의 가족에게 '타임캡슐' △ 폴라로이드 '가족사진' △ 아.나.바.다! '돗자리 바자회'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등이 진행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경기옛길 걸으며 역사문화 배워요!

초등 4학년~6학년 대상 〈경기옛길 학교〉 프로그램 진행
오는 5월 24일(수)~5월 25일(목) 경기옛길 평해길 구간에서...역사 강사 동행, 전문 배우 상황극도 진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경기옛길센터)은 경기옛길을 걸으며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는 <경기옛길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5월 24일(수)~5월 25일(목) 각각 남양주·구리·하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옛길 평해길(정약용길) 구간의 다산 생태공원, 여유당, 마재성지, 능내역 폐역 등을 탐방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학년~6학년 학생들로 최대 30명을 구성하여 대표 인솔교사와 함께 참여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탐방 장소까지의 왕복 버스와 교육용 활동지를 제공하며 문화유산 교육 강사가 동행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한다. 또 전문 배우의 상황극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의 역사문화 탐방에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경기옛길센터 관계자는 "경기옛길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옛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이야기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옛길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가족이나 전문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옛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옛길 누리집(www.ggc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members.ggcf.kr)'를 통해 오는 5월 19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경기옛길센터(031-231-8574)

조혜영/기자

김해시, 진분홍빛 철쭉의 향연 '제19회 신어산 철쭉축제' 개최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신어산 철쭉축제가 오는 21일 신어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신어산 철쭉축제는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김해의 명산, 신어산을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철쭉과 어우러지는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유서 깊은 사찰인 은하사 주차장 옆 공원에서 김명선 외 지역가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부 식전 축하공연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회식이 이어지며 행사 중간 중간 다양한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이어 신어산 정상으로 한 시간 가량 가벼운 등반을 한 뒤, 철쭉군락지에서 진행되는 2부 행사에서는 철쭉 묘목 심기 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경품 추첨과 함께 삼안동의 번영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진행된다.

축제를 주관하는 삼안동 자연보호환경보존협의회 김동수 회장은 "신어산 철쭉의 진분홍빛 정취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고, 여러 체험행사와 자연보호 쓰레기 줍기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명숙 삼안동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일상 속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5월의 신록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신어산 철쭉축제가 김해시를 대표하는 봄 체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안동 자연보호환경보존협의회는 1992년 창립 이후 현재 51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으로 탄소중립 캠페인 및 회원가입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탄소중립 마을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광용/기자

대전한밭도서관, 2023년'독서아카데미'개최

대전한밭도서관은 '마음의 소리를 듣다 : 국악, 그리고 클래식'을 주제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인 5명을 초청하여 '2023년 독서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강연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어렵게만 느껴지는 국악과 클래식에 대한 접근법, 감상법을 제시하고,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여유를 제공한다.

1차 강연은 6월 1일, 8일, 22일 2시간씩 3회 일정으로 한밭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김혜경 국악방송PD의 '국악이 내게로 오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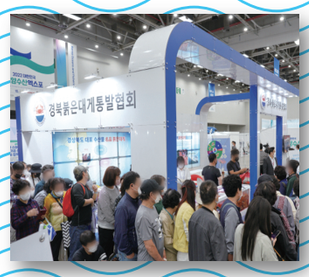
강연은 국악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대를 대표하는 국악곡 감상을 통해 우리 음악의 의의 필요성, 역할 등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국악에 다가가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전화나 대전시OK예약서비스에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강의는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한밭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밭도서관 자료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해가세요~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 · 수상레저 특별관 (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 · 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주시 GYEONG JU
주관 mire 환동해산업연구원 exco
후원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완도군 WANDO COUNTY

제62회 The 6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3.5.12(금)▶5.15(월)(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전라남도체육회
【주관】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제31회 The 31st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5. 24(수)▶5. 26(금) 3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 JNSAD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건강의 섬 완도